

# | 해양담론 |



# 왜구는 누구인가?

| 이수열 | 한국해양대학교 HK 교수  
sosoyo78@hanmail.net

## 〈차 례〉

- I. 들어가며
- II. 근대 일본의 왜구상
- III. 왜구론의 궤적
- IV. 나가며

## I. 들어가며

“13~16세기에 우리나라와 중국 해안에서 약탈을 하던 일본인 해적의 총칭.” 이것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왜구를 정의한 말이다.

고려 말 조선 초의 왜구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작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침략,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한반도의 역사는 우리 사회에서 왜구라는 말을 일본의 한국 침략을 가리키는 보통명사로 자리잡게 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 사회의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일본에서 왜구는 시대와 함께 그 이미지가 변화해왔다. 이 글은 일본 사회의 왜구 상(像)의 변천을 연구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 II. 근대 일본의 왜구 상(像)

### 1. 변방의 악당에서 해외 응비의 선구자로

왜구가 한반도와 중국 남부를 침구하던 시절, 일본은 국내 정치의 분열로 내란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일본 서부 지역을 책원지(策源地)로 하는 왜구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다. 교토(京都)를 중심으로 하는 무로마치(室町) 막부는 일본열도 전체를 지배하는 전국정권이 아니었다. 그런 만큼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교란시켜 막부를 곤경에 빠트리는 왜구의 존재는 무로마치 정권에게도 커다란 골칫거리였다. 당시 사료에 보이는 ‘반민’, ‘악당’, ‘해적’, ‘도적’ 등은 왜구에 대한 일본 국가의 부정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왜구 상은 근대에 들어 변화하기 시작한다. 간단히 정리하면, 그것은 종래의 침략자에서 일본의 해외발전을 체현하는 왜구 상으로의 변천이었다. 왜구는 고대의 삼한정벌 신화나 ‘불세출의 영웅’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한반도 침략과 더불어 일본의 해외 응비를 상징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일본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과 발맞추는 형태로 진행된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진출이 회자되던 1930년대에 들어 왜구가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선구자로 주목받은 사실은 그런 사정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 2. 패전과 왜구 연구

시대와 함께 변해온 왜구 상은 패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1945년 이후 일본의 왜구 연구는 몇 차례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상세한 선행연구<sup>1)</sup>가 있지만, 그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패전 이후의 부정적 왜구 상으로의 회귀에서 시작되어 왜구 다민족 연합설을 거쳐 오늘날의 경계인(marginal man)설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패전은 일본 역사학계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전쟁 중에 기승을 부리던 황국사관을 반성하고 세계사와의 관련성 속에서 일본의 역사를 사고하려는 시대 분위기는 왜구를 역사 연구의 전면에서 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왜구는 단지 이전부터 중일교류사 분야에서 연구를 지속해온 몇몇 사람들에 의해 단편적으로 거론될 뿐이었다.

패전 이후 왜구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추진한 사람은 이시하라 미치히로(石原道博)였다. 그는 본래 명말청초 시기의 중국사 연구자로 활동해왔는데, 일찍이 왜구를 시국과 결부시켜 논한 적도 있는 인물이었다. 1940년 한 잡지<sup>2)</sup>에서 이시하라는 왜구의 '다수'를 차지한 것은 가왜(假倭), 즉 중국인이었지만 진왜(眞倭), 즉 일본인이야말로 왜구의 본체임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뒤 그는 왜구의 대륙진출과 남해 용비(南海雄飛)의 '충결산'으로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을 평가하며 전시 하의 국민 사기를 진작했다. 패전 이후 그가 이런 생각을 견지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1964년에 출판된 한 책<sup>3)</sup>에서 이시하라는 변함없이 진왜와 가왜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론은 이전과 정반대였다. 진왜가 왜구의 본체라는 주장을 뒤엎고 진왜의 수적 열세를 이유로 들어 일본인의 수동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

1) 대표적인 연구로 윤성익, 『戰前·戰中期 日本에서의 倭寇像 構築』, 『한일관계사연구』 31, 2008.

2) 石原道博, 『大東亞共榮圈と倭寇』, 『週刊朝日』 1940년 8월.

3) 石原道博, 『倭寇』, 吉川弘文館, 1964.

### Ⅲ. 왜구론의 궤적

#### 1. 새로운 왜구 연구의 등장: 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

왜구 평가를 둘러싼 이러한 상황은 1960년대에 들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다. 1961년에 발표된 다나카 다케오의 『왜구와 감합무역(倭寇と勘合貿易)』<sup>4)</sup>은 왜구 연구에 하나의 전기를 가져온 작품이었다. 그는 책의 서문에서 왜구를 “찬란한 해외발전”의 역사와 결부시키는 것을 지양하고 “일본인이 동아시아의 일각에 그 존재를 주장하고 능동적으로 국제관계 무대에 참가”한 사실로서 왜구와 감합무역의 역사를 밝힐 것을 천명하며 왜구 연구를 다음과 같이 체계화했다.

먼저 다나카는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에 ‘왜구’가 하나의 성어로 서 출현하기 시작하는 1350년을 왜구 발생 시기로 자리매김했다. 나아가 왜구를 ‘전기 왜구’와 ‘후기 왜구’로 구분했는데, 이 점은 종래 13세기에서 16세기에 걸친 왜구를 한 묶음해서 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데 비해, 그의 왜구론이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구분의 이유는 약탈을 목표로 한 침구가 주를 이루었던 14-15세기 왜구(전기 왜구)와 밀무역 혹은 상업적 성격이 강했던 16세기 왜구(후기 왜구)가 서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구와 감합무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뒤의 왜구 연구에 방향과 틀을 제시했다.

첫째, 다나카는 왜구가 “순수하게 일본인의 행동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이는 그 뒤 ‘왜구=일본인과 고려인·조선인 연합설’로 이어졌다. 중국인 왜구의 존재는 이전부터 지적되어온

4) 田中健夫, 『倭寇と勘合貿易』, 至文堂, 1961. 田中健夫, 村井章介 편, 『増補 倭寇と勘合貿易』, ちくま學藝文庫, 2012.

바 있었지만, 다나카의 특징은 이를 전기 왜구에도 확대 적용시키려 한 점이였다.

둘째, 전기 왜구의 주체를 삼도(三島), 즉 쓰시마(對馬), 이키(壹岐), 마쓰우라(松浦) 지역의 해민으로 한정하고 왜구 발생 원인을 삼도의 지리적 여건이나 고려 정부의 무능 속에서 찾음으로써 왜구와 일본 국내 정치 상황과의 관련성을 차단했다. 왜구와 남조(南朝) 세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오랜 연구사적 축적이 있다.<sup>5)</sup> 그러나 왜구의 주체를 삼도 해민으로 한정하고 그 발생 원인을 외부적 요인에서만 찾는 다나카의 왜구론은 그 뒤 학계에서 정설로 자리잡아갔다.

셋째, 후기 왜구에서 일본인의 역할을 한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중국인 주체설을 적극적으로 채택함으로써 후기 왜구 활동을 “동아시아의 변형적인 무역 형태”로 평가했다. 후기 왜구 가운데 중국인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이전부터 지적되어왔다. 이시하라 미치히로가 이를 근거로 일본인 왜구의 수동성과 이미지 개선에 노력했던 점은 이미 소개한 대로다. 다나카는 중국인 주체설의 구체적인 증거로 규슈(九州)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중국인 해적을 예로 들어, 무역의 한 형태로서의 후기 왜구가 약탈을 주목적으로 한 전기 왜구와 질적으로 다른 것임을 강조하고, 후기 왜구에 “근거지와 구성원을 제공”한 일본의 역할을 한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1982년 다나카 다케오는 또 다른 왜구 연구를 발표했다. 『왜구: 바다의 역사(倭寇: 海の歴史)』<sup>6)</sup>가 그것이다. 이 책에는 왜구를 바라보는 다나카의 인식의 지속과 변화가 함께 나타나 있었는데, 먼저 『왜구와 감함무역』에서 주장했던 전기 왜구와 후기 왜구의 구분은 14-15세기

5) 이에 대해서는 이영, 「민중사관을 가장한 식민사관: 일본 왜구 연구의 허구와 실체」, 『일본문화연구』 45, 2013.

6) 田中健夫, 『倭寇: 海の歴史』, 教育社, 1982; 田中健夫, 『倭寇: 海の歴史』, 講談社學術文庫, 2012.

왜구와 16세기 왜구로 명칭이 달라졌지만 그대로 계승되었다. 차이가 있다면 “일본인의 죄악사의 한 페이지”인 14-15세기 왜구와 중국인 주도로 이루어진 “강행 밀무역”으로서의 16세기 왜구와의 차이점이 한층 선명하게 강조된 부분이다.

이전 연구의 주장을 보강한 사례는 왜구 발생 원인에 관한 서술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4-15세기 왜구 발생 원인 중 하나였던 ‘고려의 무능’은 국내 정치의 혼란과 토지제도 문란 등으로 구체화되었고, 그와 비례하는 형태로 삼도 해민과 그 지리적 조건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앞의 책에서는 16세기 왜구를 중국인 주체로 설명하면서 왕직(王直)과 같은 중국인 해적의 존재를 근거로 제시했을 뿐인 데 비해, 새로운 연구에서는 “왜구 발생의 온상”으로 명조정의 조공무역제도와 해금정책을 들고 있는 점이였다. 16세기 왜구를 유럽 세력의 아시아 진출, 글로벌 차원의 은 교역 등과 관련지어 생각하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차이점이였다.

그 외에도 중세 대외관계사 해석에서 몇 가지 변화가 있지만 왜구와 관련해서 가장 큰 변화는 민족 구성에 관한 문제였다. 이전 다나카가 왜구 다민족설을 매우 조심스럽게 전망한 사실은 이미 소개했다. 그런데 『왜구: 바다의 역사』에서는 『고려사절요』에 보이는 화척(禾尺), 재인(才人)의 왜구 참가를 예시하면서 ‘왜구=일본인과 고려인·조선인 연합설’을 주장했다. 앞서 언급한 고려의 정치적 혼란이나 토지제도 문란은 “화척, 재인과 같은 천민이 왜구를 사칭하여 행동하는 사회적 조건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했다. 왜구 다민족설은 이제 16세기 왜구를 넘어 14-15세기 왜구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왜구가 이처럼 중국인은 물론 고려·조선인을 포함한 ‘동아시아 해민집단의 일대 운동’이라면 그것이 ‘일본사의 문제라기보다 동아시아

사 혹은 세계사의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다나카가 주장한 '바다의 역사'는 동아시아사 혹은 세계사의 문제로서 왜구를 고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제출된 것이었다.

## 2. '바다의 역사'와 왜구

1980년대 일본의 역사학계는 커다란 전환점에 서 있었다. 현대 세계의 격변과 그와 연동하는 '근대지(近代知)'의 상대화는 유럽중심주의, 일국사관에 대한 반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새로운 영역에서의 역사를 탄생시켰다. 유럽 중심의 세계체제론에 대한 아시아 통상권의 상대적 독자성과 아시아 해역 도시 간의 횡적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아시아 교역권 논의가 등장한 것도 1980년대의 일이었는데, 그것은 기왕의 아시아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아시아 역사상을 제시한 대표적 사례 중 하나였다. 다나카의 '바다의 역사'는 그러한 상황을 의식하면서 또 그것을 선도하는 형태로 제안된 것이었다.

1987년에 발표된 논문 「왜구와 동아시아 통교권(倭寇と東アジア通交圏)」<sup>7)</sup>에는 '바다의 역사'에서 바라본 왜구의 모습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다나카는 일국사와 육역사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다를 중심으로 한 시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제기하며 "베일에 가려진 왜구 상"에 접근해갔다. 먼저 14-15세기 왜구가 대규모 집단이었던 사실에 주목하는 다나카는 왜구를 일본인만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해 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는 왜구 집단의 가능성을 ① 일본인만의 집단, ② 일본인과 고려·조선인이 연합한 집단, ③ 고려·조선인만의 집단으로 구분한 뒤 대량의 인원, 선

7) 田中健夫, 「倭寇と東アジア通交圏」, 朝尾直弘 외 편, 『日本の社會史 1 列島内外の交通と國家』, 岩波書店, 1987.



박, 마필의 해상 이동 등을 고려했을 때 “무리가 많은” ①보다 ②와 ③이 “왜구의 주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때 다나카가 고려·조선인의 예로 드는 사례는 이전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화척, 재인이었는데, 그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일반 농민이나 하급 관리의 참가도 “추측하는 데 어렵지”않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앞에서 왜구 구성원의 ③으로 거론한 고려·조선인만의 왜구 집단 수는 의외로” 많았을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다나카는 왜구 구성원의 주력을 ②와 ③으로 상정할 때 비로소 대규모화의 원인, 한반도 내륙까지 침투한 사정, 장기 지속의 원인 등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나카는 왜구의 주체를 이렇게 상정한 뒤 다민족 집단으로서의 “왜구 활동을 배후에서 지원한” 동아시아 통교권의 존재야말로 “대규모 왜구가 반세기 이상이나 존속할 수 있었던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명조가 주도하는 ‘국왕 통교의 시대’ 하에서 왜구의 행동권은 상인의 행동권과 “어떤 면에서는 일치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었다는 그의 결론에는 왜구를 동아시아 통교권의 한 주체로서 파악하려는 의지가 녹아들어 있었다.

삼도 해민설에서 시작된 다나카의 왜구론은 일본인과 고려·조선인 연합설을 넘어 고려·조선인 주체설로 나아가려 하고 있었다. 동아시아 통교권에 관한 그의 논의도 왜구의 침구 사실을 통상권 내부의 교역 활동의 일부로 해소시킴으로써 일본인 주체설을 뒷전으로 밀어내 버리고 상인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다나카의 왜구론에서 바다의 시좌는 본래의 취지와는 반대로 ‘일본인의 죄악사의 한 페이지’를 희석시키는 방법으로서 기능했다. 그것은 국경을 넘어설 것을 표방하며 시작된 ‘바다의 역사’가 다시금 국경 안으로 회귀하는 역설적인 현상이었다.

### 3. 왜구 연구의 심화

다나카 다케오는 왜구 연구를 ‘바다의 역사’와 접목시킴으로써 동아시아 통상권의 한 주체로서 활동하는 다민족 집단으로서의 왜구 상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 학설은 그 뒤 차세대 연구자들에 의해 계승되어 오늘날 일본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의 왜구 인식의 초석이 되었다.

다카하시 기미아키(高橋公明)는 다나카의 논문 「왜구와 동아시아 통교권」과 때를 같이 하여 「중세 동아시아해역의 해민과 교류: 제주도를 중심으로(中世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民と交流: 濟州島を中心として)」<sup>8)</sup>를 발표했다. 다카하시는 왜구가 동원한 대량의 말을 일본에서 수송했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며 그 공급지로서 제주도를 지목했는데, 이는 다나카가 제주도인의 왜구 가능성을 시사한 점과 일치하는 견해였다. 차이가 있다면 다카하시가 거기서 더 나아가 고려 말기의 제주도는 고려 정부가 통할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고, “당시 조선의 국가질서 차원에서 보면 제주도인과 대마도인은 거의 같은 존재”라고까지 발언한 점이였다.

화척, 재인에 더해 제주도인까지 포함하게 된 왜구의 주체는 후지타 아키요시(藤田明良)에 의해 동아시아해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sup>9)</sup> 후지타는 1368년 난수산(蘭水山)의 난에 참가한 중국인 해상세력의 일부가 제주도와 전라북도 고부(古阜)로 도피한 사실을 들어 왜구가 일본인만이 아니라 중국인과 고려인을 포함한 “다국적 집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가 상상하는 14-15세기 동아시아 해역세계는 “당인(唐人)의 거

8) 高橋公明, 「中世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民と交流: 濟州島を中心として」,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史學 33, 1987.

9) 藤田明良, 「蘭水山の亂と東アジアの海域世界」, 『歴史學研究』 698, 1997; 藤田明良, 「東アジアにおける海域と國家: 14-15世紀の朝鮮半島を中心に」, 『歴史評論』 575, 1998.

점”이었던 쓰시마, 중국인 해상세력이나 왜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서로 협조”하고 있던 “다민족 잡거 지역”으로서의 한반도 도서 연안, 그리고 주산군도(舟山群島)의 중국인 해상세력 등에 의해 유지되는 광역 통상권이 존재하던 공간이었다.<sup>10)</sup> 왜구를 다국적 상인 집단으로 평가하는 후지타의 연구는 다나카가 전망한 동아시아 통교권의 한 주체로서의 왜구상을 가장 구체적으로 계승한 것이었다.

그러나 교역의 존재만으로 왜구 발생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러한 논의들은 단지 추측에 불과하다. 이영이 지적했듯이 “특정 해역에서의 활발한 무역활동은 해적 발생의 ‘필요조건’ 중 하나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은 되지”<sup>11)</sup>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해야 할 점은 상인으로서의 왜구가 강조되면 될수록 왜구의 시기 구분은 점점 의미를 잃어, 그 결과 왜구의 폭력성도 연구자의 관심대상에서 멀어져 갔다는 사실이다.

다카하시와 후지타의 논의는 탄탄한 자료적 기반 위에서 제출된 실증 연구라기보다 단편적인 사료를 근거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 위에서 새로운 가설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추론적 경향이 강했다.<sup>1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교자로서의 왜구상이 널리 받아들여진 이유는 그들이 제시하는 동아시아 해역사가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던 당대 학계의 문제의식과 공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발표된 가장 인상적인 왜구론으로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의 『중세왜인전(中世倭人傳)』<sup>13)</sup>을 드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

10) 후지타의 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이영, 『팍스 몽골리카의 동요와 고려 말 왜구: 동아시아의 파이렛츠(PIRATES)와 코르세어(CORSAIRS)』, 혜안, 2013.

11) 위의 책, 99쪽.

12) 이런 점은 다나카 다케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윤성익, 「戰前・戰中期 日本에서의 倭寇像 構築」에 의하면, 다나카가 고려·조선인 왜구의 예로 제시한 화적, 재인도 이미 패전 이전부터 알려진 사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다시 제출한 것에 불과했다. 달라진 것은 왜구를 바라보는 역사가의 평가의 기준이었다.

13) 村井章介, 『中世倭人傳』, 岩波書店, 1993.

이다. 무라이는 먼저 국경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일조관계사’를 상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국가적 내지 민족적 귀속이 애매한 경계 영역”으로서의 “지역”과 그곳에서 활동하는 경계성을 띤 인간유형으로서 “마지널 맨”을 설정했다. 그가 목표로 한 것은 이 경계인으로서의 왜구를 통해 “국가와 민족, 또는 ‘일본’을 상대화하는 시점을 모색”하는 일이었다. 무라이는 왜와 일본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다.

‘왜구’, ‘왜인’, ‘왜어’, ‘왜복’이라고 할 경우의 ‘왜’는 결코 ‘일본’과 등치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민족적으로는 조선인이어도 왜구에 의해 쓰시마 등지로 연행되어 일정 기간 그곳에서 생활하고 통교자로서 조선에 건너간 사람은 왜인으로 불렸다. 해적의 표식이 되었던 왜복, 왜어는 이 해역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의 모습, 공통의 언어로, ‘일본’의 복장이나 언어와 완전히 같이 것은 아니었다.<sup>14)</sup>

왜구를 “국적이나 민족을 초월한 층위의 인간 집단”으로 규정하는 무라이의 입장에서는 국가나 민족으로부터 떨어져나가 “자유의 민으로 전생(轉生)한” 왜구의 민족적 출신을 묻는 작업은 “그다지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 이런 점에서 왜구 집단에 고려·조선인을 포함시켜 국제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킨 다나카의 논문도 “충격적인 견해”<sup>15)</sup>이기는 해도 왜구의 본질을 지적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왜구 연구에서 민족적 출신은 이차적 요소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구를 자유의 민으로 인식하는 무라이의 중세왜인론은 다나카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왜구를 탈민족 혹은 초민족적 집단으로까지 평가한 것이었다. 동아시아 해역세계 그 자체에 귀속의식을 갖는 경계인으로서의 왜구는 국가와 지역의 모순을 체현하면서 어떤 때는

14) 위의 책, 4쪽.

15) 村井章介, 『解説』, 田中健夫, 『倭寇』, 257쪽.

무자비한 해적집단으로 또 어떤 때는 “지역 교류의 주체”<sup>16)</sup>로서 활동했다. 무라이는 이러한 왜구의 탈경계적 특징 안에서 “현대의 ‘초국경화’를 선취하는 성격”<sup>17)</sup>을 발견했던 것이다.<sup>18)</sup>

## IV. 나가며

패전 이후 일본의 왜구 연구는 삼도 해민설에서 출발하여 16-17세기 중국인 주체설과 14-15세기 다민족 연합설을 거쳐 경계인설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왜구의 모습은 폭력적인 침략자에서 다민족으로 구성된 상인 집단으로 변모해갔다. 최근 한국에도 널리 소개되고 있는 일본 학계의 ‘바다의 역사’나 동아시아 해역사 연구<sup>19)</sup>의 왜구 서술을 보면 일본 대외관계사 연구 성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왜구에 가담한 제주도민이나 한반도 남해안의 다도해 해민 등을 사례로 들어 다민족 연합설을 주장하거나, 왜구 침구에 관한 고려 측 기록에 대해 그것을 고려왕조의 입장으로 의미축소하며 교역 목적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 등은 그 구체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일본 학계의 왜구 연구는 한국인 연구자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일본인 연구자가 제시한 근거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하며 당시의 사료를 통해 연합설이나 경계인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비판의 골자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의 연구자

16) 村井章介, 『國境を超えて: 東アジア海域世界の中世』, 校倉書房, 1997, 27쪽.

17) 위의 책, 3쪽.

18) 일본 학계의 왜구 연구와 ‘바다의 역사’에 대한 필자의 비판은 이수열, 「왜구론의 행방: ‘바다의 역사’와 일본 중세 대외관계사」, 『해항도시문화교섭학』 21, 2019.

19) 예를 들어 하네다 마사시 편, 조영현·정순일 역, 『바다에서 본 역사: 개방, 경합, 공생 동아시아 700년의 문명 교류사』, 민음사, 2018.

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무라이 쇼스케는 한국 측의 비판을 국적에 구애받은 근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새로운 역사 교과서’와 상통하는 점이 있다고까지 극언했다. 이러한 발언은 왜구의 민족 구성 문제를 먼저 제기한 쪽이 일본 학계인 점을 생각할 때 하나의 궤변일 뿐만 아니라 학문적 비판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도 아니다.

‘바다의 역사’는 본래 육지 중심의 역사관을 바로잡기 위해 제출된 방법론이었다. 바다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역사학에 보이는 국가중심사관을 반성하고 국경과 민족의 틀을 넘어 새로운 역사를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오늘날 동아시아 해역사 연구는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극복하려는 국가에 의해 다시 포섭되어 악용되고 있다. 교과서에 묘사된 왜구에서 더 이상 침략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현재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과거사 수정 방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동아시아해역의 무법자에서 상인으로 변모한 왜구가 또다시 긍정적인 이미지로 포장되는 사태를 걱정하는 것은 최근의 주변 상황을 보면 단순한 기우라고만 할 수 없을 것이다. 근현대 일본에서 왜구 연구가 걸어온 발자취는 그대로 국가의 대외정책과 궤를 같이해 왔다. 이런 점에서 왜구는 역사를 거울삼을 때 여전히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현재진행형의 주제이다.



『倭寇図卷』에 묘사된 왜구(東京大學史料編纂所 소장)